

□ 올바른 미술 감상법

감성의 바다, 배가 필요하다

최병식

(미교과 교수)

예술의 예외주의 (Art Exceptionalism)라는 말이 있다. 즉 대중이나 사회와 완전히 유리된 피기스럼고도 신비스러운 독자적인 코스모스로서의 예술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만 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고독한 존재로서 사회나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이원적 관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작품의 공감

특히 우리는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여러사조나 개념예술 같은 예에서 흔히 이같은 난해한 예외적 작품들을 대해왔으며, 그럴적마다 그 해법을 포기하고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현대미술이고 전위적인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상자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감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이 질문은 쉬운 예를 들어서 그 반문에 답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진료기록을

요즘 대학생들이 미술관에 가서 무엇을 볼까?

화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린 '미술작품들'을 대다수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 미술작품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술세계를 최병식 교수의 글을 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하거나 약처방을 하면서 도무지 알아볼지 못할 내용을 쪽지에 적어주면 다시 약사는 휘갈겨 쓴 그 기록을 보고서 곧바로 약을 지어준다. 여기에서 의사와 약사 사이에는 그들만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언어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영원과 감성의 바다에서 송두리채 발산되는 예술의 경우 그 독자적인 작가마다 그 순간마다의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없었나?

미술감상 요령

우리는 그 숨겨진 난해한 언어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그의 청각마비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감상한다면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스페인의 게르니카 지방의 대학살을 항의하기 위해 그린것이라는 배경을 모르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최소한 피카소가 입체파 화가라면 입체파의 미술사적인 배경과 주요경향은 이해해야 하며 반 고흐의 작품 중 '달터가게의 초상'이란 조그만 작품이 800억원이 넘는 세계최고가품으로 팔렸다면 단순히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 이전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달터가게는 고흐의 말년에 정신질환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 또한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 중세가 있었던 의사였다.

고흐가 그린 예전의 초상화 중 한 점인 '달터가게의 초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며 세계최고가품으로 경매된 그의 '아일리스', '해바라기' 등과 함께 모두 일본인에게 팔렸다.

왜 하필이면 일본인인가? 그

작가의 삶, 예술 이해 지름길 미술,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것은 19세기 후반 '후기오에'라는 일본전통미술이 고흐가 속한 인상파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소중히 하려는 문화적 의식에서이다.

이처럼 한 점의 그림, 한 작가, 한 유파의 배경을 살펴보면 감상하고 있는 작품의 미감이나 감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술관 관람 필요

두번째 요건으로는 많은 미술품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사동, 관훈동, 사간동, 청담동 지역에는 아예 화랑거리가 형성되어서 한번 외출로 수십건의 전시를 돌아 볼 수가 있다. 입장료도 거의 무료라고 보면 취미생활로 적격이 아닐 수 없다. 주말마다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전시회를 꾸준히 다니면 카타르시스도 구할 수 있게 되고 작가나 화랑주인, 큐레이터들도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때로는 전시회 서문이나 한권의 책보다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값진 경험일 수 있다.

특히 '작가와 대화'라는 제목으로 시도되는 각 전시회의 프로그램이나 미술의 이해차원으로 짜여진 책들도 상당수 서점에 진열되어 있어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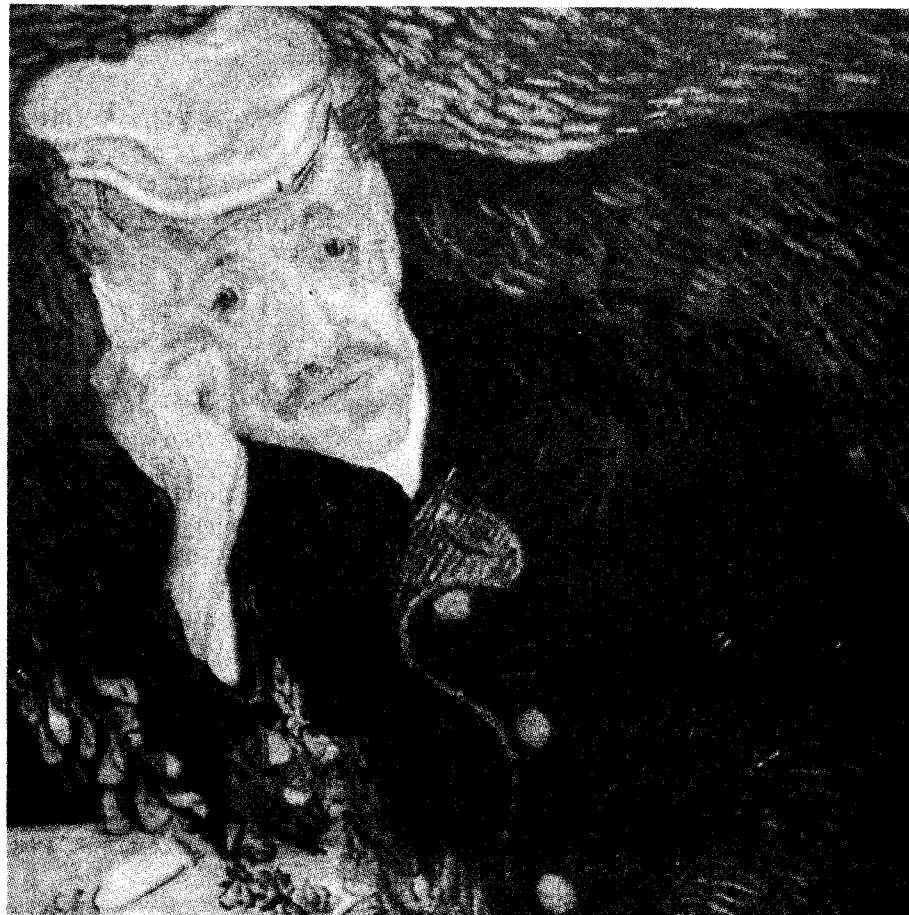
셋째의 조건은 미술을 예외적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침에 단장하는 머리, 얼굴 화장, 넥타이, 의복, 문방구, 가방, 모든 일상용품들의 선택이 모두 미적 감각을 요구한다. 무심결에 훑아보는 나염 하나의 의미에서부터 화려한 색채의 꽃잎들까지 모두가 고도의 추상적 심미의식을 동반한 미술의 화신이며 캔버스다.

'슈퍼캔버스' 그것은 지구 모두가 캔버스라는 뜻이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다단한 미디어의 시대, 감각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꾸준한 노력 필요

캔스타블이 "진정한 취미는 어중간한 취미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듯이 위의 세가지 요건들만 갖추어 보면 우리들의 삶과 학문과 낭만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휘황한 빛으로 빛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예술 장르가 감상은 제2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움의 감상성 그 이전에는 치열한 노력과 탐구자세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고흐가 그린 예전의 초상화 중 가장 걸작인 '달터가게의 초상'.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의 연유를 모르고 작품을 감상한다



가볼만한 미술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작품 전시회는 많은 곳에서 열리지만 주로 인사동, 청담동 등지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인사동에서 전시되는 작품에는 'Mixed media'가 조형갤러리(735-2214)에서 4월 1일까지 전시되며, 판화를 소재로 한 '이항아 전'이 오인화랑(739-9291)에서 4월 1

일까지 열린다. 또한 '심부섭 조각전'이 문예진흥원 미술관(760-4500)에서 4월 2일까지 열린다. 한편 청담동, 인사동에서는 '추진협 서양화전'이 갤러리 라파르(516-1503)에서 전시되며 6명의 화가가 붓의 이미지를 다룬 '2부 미술의 상전'이 갤러리 마당포라(548-4647)에서 4월 3일까지 열린다.

문화단신

마로윙스 햄릿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의식중심으로 재구성한 작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식과 감각들에 맞게 조립된 작품
·4월 20일까지 공연
화~금 오후 7시30분 주말, 공휴일 오후 3시, 6시
☎ 3672-6051

위험한 가계-1969

·기행도의 유고시집 '일국의 검은 잎'에 나오는 시를 소재로 삼았다.
·주인공을 통해 빈집에서 나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



·김학선(극본), 김종연(연출)
·4월 17일(목)~27일(일)
평일·주말 오후 4시반, 7시반
☎ 744-7090

이정열 (LIVE CONCERT)

·탁월한 가창력과 열정적인 연주
·코러스와 연주인을 포함해 총 12명 출연
·대표곡 '다시 너에게', '그 바람 앞에서면' 등을 부른다.
·4월 8일(화)~13일(일)
평일 오후 7시반, 주말 4시, 7시
☎ 766-5417

그 여자 역적 어멈

·1950년대를 배경으로 전쟁 중에도 공연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중년 여배우의 삶을 그린 작품
·김정옥(작, 연출), 이병복(미술), 그리고 박정자(배우) 3인의 작품
·4월 8일(화)~7월 6일(일)
평일 7시 30분, 주말 3시, 6시
·학전 BLUE
☎ 763-8233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④ 석조 건물과 돌도끼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연천전곡리 사지중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돌이 인간생활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인간의 생활은 돌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학교 박물관에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6개 대학이 연합 발굴한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 유물과 충남 공주 석장

리 그리고 서울 면목동과 신답리 구석기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 유물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광주 미사리, 북한강 줄기의 대성리 등지의 출토 석기를 소장 전시하고 있다. 이들 유적과 유물들은 한반도의 석기 문화 세계를 밝혀주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 석조건물로 본관과 중앙도서관 및 아직 진행중인 대강당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본관은 1953년 11월 24일에 착공하여 1956년 7월 30일에 준공하고 1975년에 증축공사를 한 석조 건물이다. 본관은 대학의 심장이며 대학의 기상을 대표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천년 후에도 변치 않도록 공고하게 건축하였다. 본관은 단단한 반석위에 기초를 놓았으며 본관 전면에는 14개의 석조원주를 세웠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 표시한 것으로 14개 도에서 인재를 배출하여 민족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교육입국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크라운 앞에 있는 경희극장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1973년에 한국 석조 정원의 아름다움을 재현하였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모양은 경희인의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것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경희인의 건설적 협동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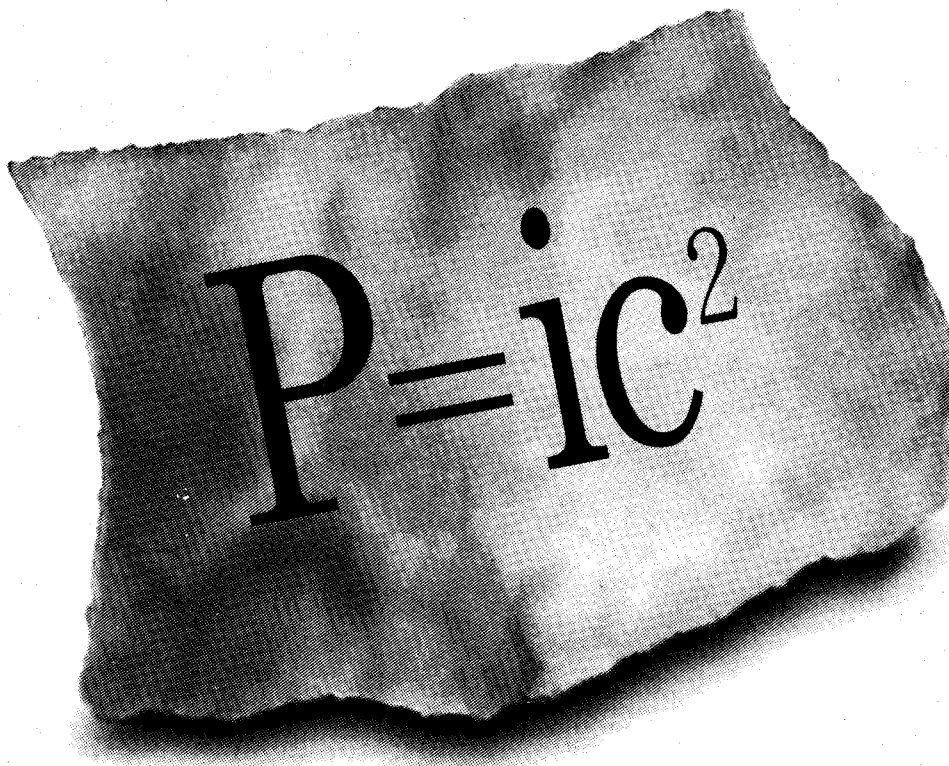
돌은 영원성과 강인한 정신을 표상하며 한 사회의 기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의 가치를 최대로 구현한 건물이 학교의 본관인 것이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97 캠퍼스 파워원리

P: Power,
i: information,
c: computer & communication



캠퍼스 경쟁력은
정보력이 좌우한다!

삼성전자 C&C의 앞선 정보력과 시스템이 캠퍼스 정보화의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21세기는 소프트웨어의 시대. 지구촌의 지성들과 겨루며 넓혀가야 할 당신의 정보파워— 이제, 캠퍼스 정보화 시대를 앞당겨가는 삼성전자 C&C의 정보통신제품과 함께, 당신의 캠퍼스 경쟁력을 키워십시오.

앞서는 제품력

- No.1 컴퓨터, 삼성 매직스테이션
- 캠퍼스형 노트북PC 센스 아카데미
- 통합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훈민정음
- 한국지형에 강한 휴대용 애니메이션 디지털

튼튼한 지원 시스템

컴퓨터 무료교육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캠퍼스에 정보파워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C&C 정보화 솔루션 - 효과적으로 캠퍼스 정보화를 뒷받침합니다.

캠퍼스 경쟁력, 삼성전자 C&C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Smart & Soft

SAMSUNG

삼성전자

경희인을 위한 센스아카데미 특별전시판매

접수처: 서울 수원 중앙도서관 1층
기간: 3월 28일까지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CC.CO.kr>
· PC통신(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GO SEC